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22,
사사 소개

© 데이비드 하워드(David Howard)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여호수아서부터 룻기까지의 책들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id Howard입니다. 22회, 사사기 소개입니다.

안녕하세요, David Howard 박사님, 이번 시간에는 사사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강의는 강의를 보면서 따라오신다면 당연히 여호수아서에 이어 새로운 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히브리 정경에서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의 두 번째 책입니다. 기독교인 사이의 비공식 명명법에서는 종종 이것을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이는 아마도 창세기와 출애굽기, 민수기에 기록된 정확한 역사가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들은 그 스레드에서 계속됩니다. 비디오와 함께 사사기의 개요가 될 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동안 그것을 갖고 싶다면 아마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스라엘의 배교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버림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개요를 구성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슬프게도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들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약속의 성취인지, 그리고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매우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한 민족으로서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대부분은 쫓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에서 우리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의 밑바닥, 어두운 아랫배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의로 잘못된 길로 인도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이웃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그리고 이 책에는 죄와 속박에 대한 반복적인 순환이 있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다음 심판관에게 그것들을 넘겨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반복되는 순환일 뿐이고 실제로는 직선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이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책의 제목이 사사기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책은 사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쇼파티팀(Sofatim) 을 번역한 것입니다 .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책은 3장부터 16장까지 수백 년에 걸쳐 이스라엘을 거쳐간 12명의 사사에 관한 책입니다 . 책의 저자에 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책은 어느 곳에서도 저자임을 주장하지 않으며, 판사의 저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경의 다른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호수아서와 관련하여 말했듯이, 개신교 정경의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의 모든 역사서들은 모두 익명입니다. 그리고 후기 랍비 전통에 따르면 사무엘에게 사사의 권위가 부여되었으며 이는 확실히 가능합니다.

그는 사무엘상 초반의 최종 사사였지만 성경 자체에는 그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자에 관한 질문을 공중에 남겨두겠습니다. 책이 쓰여진 날짜에 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확실히, 그것은 그 시대의 마지막 사건 이후에 기록되었으며 그것은 대략 기원전 1050년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첫 번째 왕 사울이 왕권을 세우기 직전이고,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기 직전입니다. 사울은 BC 1050년경에, 다윗은 BC 1010년경에 왕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그 이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날이 사건의 날짜입니다. 따라서 글은 어느 시점에서 그 사건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이지만, 그 이후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8장 30절에는 그 땅이 포로로 잡혀가는 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확실하게 바빌론 포로 생활, 즉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유배된 일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진술은 수백년 후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책 전체가 그 당시에 쓰여졌는지 아니면 책의 그 시점에서 다른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되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구성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적어도 책의 일부는 훨씬 나중에 구성되었습니다. 1장 21절에는 여부스 족속 곧 예루살렘으로 알려진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 있는데, 여부스 족속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여부스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여부스를 함락시켜 자기 성읍 다윗 성으로 삼았으니 곧 예루살렘이라 하니라. 그 해는 다윗 통치 7년인 기원전 1003년쯤이었을 것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여부스 사람들은 거의 흩어졌고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에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책의 그 부분은 다윗이 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집필 시기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책은 다양한 것들의 모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12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이야기와 기록을 갖고 있고, 어쩌면 이렇게 서로 다른 수집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는 기본적으로 1장 1절, 2장 5절, 2.6절부터 3.6절까지 두 가지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들은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책은 일정 기간에 걸쳐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의 마지막 형태는 성령의 영감과 인도 아래 이루어졌으나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음을 강력히

단언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글을 쓴 날짜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없습니다.

책의 통일성 측면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책에 대한 이중 소개입니다. 그런 다음 책의 핵심인 사사 시대,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12사사에 대한 설명이 책의 끝 부분에 나옵니다.

이 두 종류 가 있습니다 . 우리는 그것을 부록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17장과 18장, 그리고 19장에서 21장입니다. 그래서 책은 우리가 어디에서 읽는지에 따라 다른 맛을 가집니다. 물론 많은 비판적 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출처와 서로 다른 시기에 모아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복음주의자들은 그것이 마침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합쳐졌을 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일부라고 단언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디모데후서 3, 16).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이 책의 최종 형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이 영감을 준 것입니다. 사사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경건한 공동체에서 자랐고 실제로 4학년이 되었을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 책을 읽고 격려를 받았고 그 이후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장하고 있던 일부 집단에서는 심지어 젊은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여호수아서와 이 부분에 있는 다른 책들과 함께 사사기를 이스라엘의 역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미국 역사 교과서나 로마 제국의 역사를 읽는 것과 같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든 아니든 그런 종류의 진술 뒤에는 일종의 암묵적이지만 암묵적으로 확실히 때때로 이것이 역사를 위한 역사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세기, 저 세기, 이스라엘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역사서들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사사기 를 비롯한 다른 책들의 저술 뒤에는 훨씬 더 신학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책의 구조와 일부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는 이 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리막길을 반복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 책에는 구약의 대부분의 책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혼란과 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향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앞서 언급한 다른 것, 즉 이스라엘 안에 왕이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정한 중앙 집중식 리더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 대한 토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했는데, 혹시 그 강의를 보신 분들이라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권위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보다 훨씬 오래 전에 손질을 받았음이 분명했습니다. 오경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그의 지정된 후계자를 미리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사기에서 모든 것이 분산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함께 모일 중앙 집중식 예배나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책은 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눈에 옳은 일을 했다는 이러한 진술로 끝납니다. 여호수아 강의를 쭉 따라오셨다면 우리가 왕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백성에게 본이 되는 중앙집권적 지도자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범적인 왕과 같은 왕이 있었다면, 그 모델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 그런 왕이 있었더라면 여호와께 예배하도록 백성을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상황이 훨씬 나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 결과는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마침내 왕권이 확립되는 룻기와 사무엘서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사사기는 정경에서 구약성경의 순서에 따라 논리적인 위치에 들어맞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사건을 따르며 다음 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BC 1400년대 말과 BC 1300년대 초반에 일어났다면, 사사기는 그로부터 BC 1,000년대 중반 다윗, 사울, 사무엘 시대 사이의 수백 년 동안에 일어납니다. BC, 1050, 1010 등. 연대적으로는 여호수아 다음이고, 룻기는 사사들이 재판하는 시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므로 그 일이 그 시기에 일어나며 사무엘서보다 앞섭니다.

히브리어 정경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없지만 히브리어 정경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이 있습니다. 사건의 날짜에 관해서는 구성 날짜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사건의 날짜는 여호수아서 서론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더 큰 논의를 언급하겠습니다.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일어났고 내 견해로는 그것이 아마도 기원전 1400년대 중반에 일어났을 것이고 아마도 1446년이 정확한 날짜일 것이다.

그 연대 측정의 핵심은 솔로몬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하는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48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솔로몬의 4년째 되는 해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그러한 달과 연도는 966년, 967년이 되고, 480년 전은 446년이 됩니다. 그러면 40년간의 광야생활을 거쳐 1406년, 1400년경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사사 시대는 기원전 14년, 13년, 12년, 1100년대 어느 곳에나 해당하며 아마도 400년 에 가까울 것입니다 .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장학금에 있는 여러분의 대다수는 아니요, 사사 시대는 훨씬 더 압축되어 있으며 지중해 전역에 걸쳐 사회에 큰 파괴와 격변이 있었던 때는 기원전 1200년 이후였습니다. 사사기는 약 1200년 이하에서 약

1050년까지 약 150년의 기간으로 압축될 예정이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연대기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모든 재판관의 수효를 보면 거의 모든 재판관의 수효를 알 수 있는데, 그 재판관이 땅을 다스리던 해는 아주 오랫동안, 그 땅은 40년, 80년 동안 안식을 누린 것입니다.

그 숫자를 모두 더하면, 특히 사무엘과 사울, 다윗의 연대를 더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간에 맞는 것보다 총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1400년대 또는 1300년대 말, 1300년대 초반에 두든, 아니면 1200년 이후에 두든, 우리는 여전히 연대기가 단순히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사기의 숫자는 50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끝납니다. 그 물건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받는 인상은 사사기가 엄격하게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각 판사가 전국을 다스리는 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있고, 그 나라의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판사의 시간과 겹칠 수도 있는 특정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이 전체 국가가 아닌 소수의 지파만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모델은 각 사사의 임기가 다른 사사와 겹치는 것을 생각하고 이를 출애굽 의 정해진 날짜와 다윗과 사울의 기간을 볼 수 있는 기간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것은 후기 청동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라는 고고학적 명칭의 두 시대에 걸쳐 발생합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는 지중해 동부에서 기원전 1550년경부터 약 12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은 엄청난 부와 번영의 시대입니다. 대도시가 있습니다. 큰 공공 건물이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 농경 사회뿐만 아니라 도시화된 사회와 도구 및 사회의 많은 발전이 꽤 잘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와 민수기에서 가나안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성벽 도시를 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약 1200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대량 전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핵전쟁의 여파와 같습니다.

가나안이나 이스라엘 땅뿐 아니라 지중해 전역의 도시들이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현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대량 이주, 난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테러 단체 등에 의해 난민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집트 문헌에는 육지와 바다 민족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인의 반대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에게 해 지역으로 보이는 곳에서 이주해 왔고, 와서는 사나운 전사들이었으며 동부 지중해를 통해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판사 시대의 중간인 1200년경과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년 이후에는 – 그래서 문명은 붕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농촌 지역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번영하는 대도시는 없습니다. 사회는 일종의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부 지중해의 사회가 회복되기 시작하려면 앞으로 150년 또는 몇백 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다른 곳인 사마리아와 므깃도를 다시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년 동안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시골에서 기본적인 맨몸으로 생존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후기-초기 철기시대 I은 일반적으로 이 200년을 지정합니다. 철기시대 II는 기원전 1000년경에 시작되어 수백 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철기 시대라는 용어 자체에서도 도구는 좀 더 가단성이 있는 청동 도구에서 더 단단한 도구와 더 효과적인 무기(창 및 철 전차를 포함한 기타 것들)로 전환됩니다. 철기 시대. 그러나 이는 Iron I 기간이 끝날 무렵까지 실제로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자체가 혼란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추가 외부 이벤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1200년경에 발생한 대규모 파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내 우리는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뒤에는 고고학, 문학 문헌, 지중해 동부 지역, 이집트 등 외부 출처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건들이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초기 철기 시대에 주목할만한 두 가지 기술 발전. 그 중 하나는 우리가 말했듯이 철제 도구와 무기의 개발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정교한 농업이 가능해졌고 사람들은 황야에서 벗어나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사기술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을 저장하는 회반죽 수조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훨씬 더 오래 담을 수 있도록 회반죽을 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제1철 철기 시대에 고고학적으로 처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촌이 우물이나 샘, 수역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곳에서 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 그것은 이 기간이 끝날 무렵의 발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는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관련하여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6~7개국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사사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중 일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날 무렵에 가장 큰 집단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식별 가능한 주요 집단으로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남서쪽 해안, 즉 지중해 연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과 관련된 5개의 주요 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영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발굴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식별 가능한 블레셋 도자기와 문화, 사회가 확인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에게 해 지역에서 이주하여 1200년경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 흥미롭게도 그들의 도자기는 그리스 섬에서 나온 매우 세련된 그리스 및 미케네 도자기와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 그것은 그것들을 훨씬 더 조잡하게 모방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정교하게 제작되고 스케치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도자기는 그것을 모방했지만 훨씬 더 조잡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 특징적으로 빨간색과 검은색 페인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전 시대의 미케네 도자기에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 종류의 것들에서 솜씨가 거의 훌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00년의 경계 기간은 블레셋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도자기에서도 입증됩니다.

- 삼손은 물론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항한 대판사였습니다. 그리고 입다. 그러나 삼손은 그곳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성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소 거친 민족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을 할례받지 않은 사람으로 여러 번 묘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서 반드시 언약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할례를 시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한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다른 누구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로 알려졌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고정관념은 그들이 실제로는 거칠고 뒤떨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블레셋 영토에서 발견된 사실에 따르면 그곳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곤(Dagon) 또는 다곤(Dagon)이라는 이름의 자신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들 5개 주요 도시의 5명의 영주 또는 추장 아래 일종의 연합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이 독특한 블레셋 도자기가 언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남아 있는 블레셋 문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1200년경에 도착한 후 한동안 번성했지만 어느 정도 소멸되어 다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후 수세기 동안 식별 가능한 블레셋 문화가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초기 철기 시대에만 해당됩니다.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는 마땅히 따라야 할 여호와에 대한 종교적, 영적 믿음과 이방 신들, 가나안 족속과의 갈등과 그 경향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과 여신들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 그것은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매력을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계속해서 다른 신들과 여신들에게로 넘어가 그들을 받아들였습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가나안 사람들의 주요 신과 여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나안 종교 체계에는 꽤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제도에서 가장 높은 신은 엘이라는 신이었습니다. 히브리어를 포함한 셈족 언어에서 이 용어는 신 또는 신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이 용어는 성경에서 더 큰 단어인 for(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어는 엘로힘)의 짧은 형태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참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El)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판테온에서는 이 신이 참 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판테온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는 일종의 분리된 노인 정치가였습니다. 박사 과정에서 교수님 중 한 분께서 <흰 수염 노인>이라는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엘에 대한 그의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르네상스 그림에 있는 그림들이 엘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내가 그것을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은 선한 신, 자비로운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 그는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진정한 힘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강력하고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사실상의 높은 신은 그의 아들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은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가나안 족속의 주된 신으로 보는 신이었습니다. 사실 엘에게는 아세라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통 아세라로 발음되는 그 용어를 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주로 아메리카 인디언의 토템 기둥과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와 같은 극지방에서 그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기리기 위해 또는 그녀를 위해 세운 아세라 목상입니다.

그 사람은 바알의 어머니 엘의 아내입니다. 바알에게는 아내 아스타르테(Astarte), 아스다롯(Astaroth), 아스다롯(Astoreth)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를 철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과 여신의 전체 시스템을 봅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과 여신이 모두 있었습니다. 바알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아세라엘에게도 아낫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낫은 바알의 누이였습니다. 그녀는 다소 무서운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적들과 싸웠습니다. 때로는 바알이 무능력하거나 심지어 죽은 것으로 여겨졌을 때, 바알은 그의 적들을 무너뜨리고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에게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로 갈 겁니다. 하나 의 신 , 하나의 가나안 신은 못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죽음이다. 또 다른 신은 얌(Yam)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바다이다.

그래서 얌은 바다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거대한 바다 괴물이었습니다. 못은 지하세계와 죽은 자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나안 문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신화가 있는데, 바알이 그의 적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Anat가 나타나서 그것들을 모두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리면 바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맥락에서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구름의 라이더입니다.

그분은 폭풍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번개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비를 보낸다.

그리고 비는 땅에 물을 주어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바알이 죽고 다시 일어나는 이 순환은 한 해의 농업 순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알이 죽으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겨울이 됩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면, 봄이 오고 농작물이 자라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여기에 괄호를 넣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독서 도중 어딘가에서 또는 미국의 일부 텔레비전 스페셜, 히스토리 채널 또는 디스커버리 채널 등의 장소에서 성경을 다음과 같은 맥락에 두고 예수를 신으로 묘사하는 성경 이야기를 접했을 수 있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자신을 이런 이야기의 맥락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있는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독교 이야기를 이러한 죽고 부활한 하나님 이야기의 맥락에 두기를 좋아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약의 이야기는 바알 이야기 및 다른 이야기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정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여러 번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힌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종류의 농업 환경에서는 신들이 매년 죽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비교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나 충분히 폭넓게 읽으면 일부 독서에서 그런 내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바알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바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는 여러 해 후 아합 왕 시대에 사람들이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가나안 공주였는데, 그녀는 바알 숭배를 가져왔습니다.

아합은 바알 숭배라는 공식적인 국교를 확립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합 치하에서는 이것이 좀 더 공식적인 방식으로 도입됩니다.

아세라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폴란드인들에게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그린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글쎄요, 우리는 1929년에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시리아 북부에서는 우가리트(Ugarit)라는 고대 도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회반죽이 칠해져 있고 팔레스타인 전역에 흩어져 있으며 이 지역은 층층이 쌓인 둔덕이며,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언덕 위에 세워진 고대 도시의 유적지였습니다. 그들은 텔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아랍어 단어이고 히브리어 단어는 Tell입니다.

그러나 텔은 여러 층이 수세기에 걸쳐 도시 존재의 여러 층인 마운드입니다. 도시는 파괴되었고, 수십 년 후 그 위에 새로운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929년 에 한 시리아 농민이 그의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림자 속에 있었고, 한 번도 발굴된 적이 없는 이 큰 말들 중 하나 근처에 있었습니다. 방금 거기에 있었고 수세기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농부의 쟁기가 거대한 돌에 부딪혀 쟁기가 손상되었는데, 살펴보니 그것은 어떤 종류의 묘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이 다른 일로 이어졌고 결국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 왔고 발굴을 시작했고 그들이 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곳 이 텔에 세워진 것은 도시 인근의 묘지였다. 그래서 고고학 탐험대가 모여서 그것을 발굴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층을 발굴하여 왕실 기록 보관소가 있는 매우 영향력 있는 이 거대한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우가릿어로 알려지게 된 언어를 포함하여 여러 다른 언어로 기록된 수천 개의 서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문헌들은 우가리트가 동서로 소아시아까지, 또한 남쪽으로 가나안과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국제 무역의 주요 중심지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상업 교차로였습니다.

또한 그 책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수십 개의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우가릿 본문에서 배우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엘과 아세라, 바알, 아스타르테, 아낫, 못, 얌 등의 이야기를 구체화하는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야기를 읽고 싶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인터넷에서도 이러한 텍스트의 번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훌륭하고 흥미로운 독서를 만들어줍니다. 신들과 여신들 사이에 폭력적인 충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소하고 질투심이 많으며 경쟁심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배경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사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책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사기나 다른 많은 책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가차없이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배교는 이 배도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스라엘이 경건한 왕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호수아서의 끝 부분부터 책 전체에 걸쳐 도덕적 수렁 속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

그리고 책을 읽을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인도할 경건한 왕이 있을 때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이 책은 여호수아 시대와 사무엘, 다윗 및 다른 시대 사이의 과도기적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수립의 기초를 다지는 책입니다. 별도의 부분에서 나는 언약,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그것을 통한 왕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왕권에 대한 개념이 맨 처음부터, 창세기의 시작부터 신명기를 거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독립적인 비디오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왕이라는 개념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

그것은 성경 저자들이 지적한 것인데, 어느 시점에 왕이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왕과는 다른 종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사기에서도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 즉 배교와 경건한 왕을 향한 탈출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아래에 몇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확실히 사사기의 주요 주제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땅의 기업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초점은 여전히 초점이지만, 문제는 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끝에 그러한 힌트가 있지만 아직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사기, 특히 첫 장에서는 그들이 땅을 차지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땅에 대한 관심은 여호수아의 또 다른 주제 , 즉 예배의 순수성에 대한 사상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예상대로 미국에서 왕을 몰아냈다면 그들의 종교와 신앙은 주변의 어느 누구에게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땅에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오염되었고,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제가 볼 두 번째 주제는 배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배교가 위협의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서문 1장과 2장에서 그것을 봅니다. 다음 사사가 이스라엘이 돌아섰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음 적의 손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반복해서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백성들을 구원할 다음 재판관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이 이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대부분의 판사 자신이 이러한 배도를 구현했습니다.

판사들은 대부분 훌륭한 미덕의 귀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에 반대되는 몇 가지 빛나는 예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판사 자신, 개별 판사 자신이 해결책의 일부인 것처럼 문제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 에는 판사들의 모습에서 혼합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사 두 사람은 기드온과 삼손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아주 잘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는 에봇을 만들고 그와 그의 가족에게 올무가 되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약화시켰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군사적으로 구출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도덕적 삶은 결코 덕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삼손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여기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성서에는 여러 사사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 말하자면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창녀 라합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강의에서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는 사사기의 네 사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라고 말합니다 .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는 열두 사사 중 네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공의를 베풀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죽음의 가장자리에서 피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33절). 칼은 약함을 통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영웅들, 이 네 사사,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도 이 모든 일을 했다고 말하는 전체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높은 받침대 위에 올려 놓습니다. 내 관점은 사사기가 대부분의 사사들을 훨씬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일을 했다고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단점과 결점을 드러내는 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관점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마도 이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최종 심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저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관점으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단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재판관들만이 아니라, 다윗 자신도 밧세바와 그 남편 우리아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최종 판결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결점에도 불구하고 David에 대한 긍정적인 평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당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이 죄가 없다는 것이라면 매우 짧은 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에 맞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사사기 저자와는 다른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슬프게도 여러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지도자들 자신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사기의 또 다른 주제는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큰 주제의 일부로서 군주제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 구절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더 발전시킬 것이므로 결국에는 그것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두 가지 사항은, 하나는 판사라는 직위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심사위원은 누구였나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말하자면 그들의 직업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판사를 검은 법복을 입고 법정에 있는 엄격한 인물로 생각하거나 TV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판사인 Judy 판사 또는 그와 유사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사사기의 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사기 4장에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사사기 4장을 보면 이 장은 드보라와 바락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등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렇다면 드보라는 재판관인데 재판할 때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5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벧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와 재판을 받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그녀가 우리가 생각하는 21세기 패션의 판사인 것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이 오는 사람에게 판단을 내리는 등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녀가 하솔 왕 야빈과 장군 시스라에 맞서 싸우고 가나안 사람들을 패배시키는 데 앞장섰음을 봅니다. 따라서 나머지 대부분의 판사들에게는 이러한 법적 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판사로서의 기능을 보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심사위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맥락, 적어도 심사위원에 대한 실제 이야기가 있는 심사위원은 12명, 심사위원 중 7명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일종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 중에는 소사사라고 하는데,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한두 구절.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재판관 중 7인의 주요 기능은 군사 구원자의 기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순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빠졌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고,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어떤 적의 손에 넘겨 주셨고, 그들은 압제를 당했으며 한동안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다음 사사를 일으키셨고, 그 사사는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땅은 40년, 80년 또는 그 기간 동안 안식을 누리고, 그런 다음 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재판관의 핵심에는 군사 구출자 또는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삼손의 경우를 볼 수 있으며 기드온과 다른 대부분의 주요 사사들의 경우도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사기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법정에서 의사봉을 들고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 아래 앉아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군사적 구원자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끄십시오. 마지막으로 책의 서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개요를 알고 계시다면 제가 한 일을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라고 부르며 이스라엘 배교의 뿌리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로 1장 1절, 2장 5절, 그리고 2장, 6절부터 3절, 6절까지 이중 소개가 있는데, 그것들은 일종의 중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첫 번째 여호수아 서론의 배치와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니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따라서 연대순으로 이것은 여호수아에서 사건이 끝난 직후에 발생하며 지정된 지도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지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에게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 앞에 절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지파들 사이에서 탁월한 위치로 올라갈 것이며,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훨씬 나중에 경건한 왕들이 유다 가계에서 나올 때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족의 명성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15장에서 유다에게 분배된 땅이 모든 지파 중에 가장 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말하여 모집합니다.

시므온은 결국 유다 영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의 평화로운 결말과 이곳의 보다 호전적인 성격 사이의 갈등이나 대조를 보기 시작하는 강한 대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서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은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할 때 호흡하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1장 마지막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특히 19절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인 18절에서 유다는 가사와 그 영토, 아스글론 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19절을 보면 평지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다의 적인 가나안 족속 의 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철 독점이 있습니다 .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다. 그래서 여기에는 불완전한 정복감이 있는 반면, 거기에는 더 완전한 정복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물론 이와 유사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이미 정복이 실제로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사기 2장 다음 부분인 두 번째 서론의 첫 부분인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장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그 땅을 차지하려고 자기 기업으로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모든 날 곧 여호수아보다 먼저 살아서 큰 일을 본 장로들의 평생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8절, 여호와 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그의 고향에 묻었습니다. 10절,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본 요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평생과 그들보다 생존한 장로들의 평생 동안 여호와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쾅,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에 배도의 때가 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조슈아는 두 번 죽는 것 같거든요.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슈아가 갑자기 다시 살아났습니다. 2장 6절에서 그는 백성들을 해산하고 그 구절 후반부에 죽습니다. 8절.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장 6절부터 10절까지가 플래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발췌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24장에서 거의 잘라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망 통지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사사기의 저자가 여기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을 기억하고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기초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두 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비판적 학자들은 이것이 성경의 모순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책의 다음 부분에 나올 내용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기에 배치한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간의 플래시백입니다. 이상으로 사사기 서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책 자체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부터 룻기까지의 책들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id Howard입니다. 22회, 사사기 소개입니다.